21개월 구슬땀, 친환경 제철소로 결실… 미세먼지 '뚝'

〈투자 4100억〉

Q 르포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보니

"2021년 오염물질 배출량 1만 톤 수 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친환경 바람을 탔다. 안 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9일 현대제철 당 진제철소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 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환경 제철소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사장은 또 고로 가동중단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 "10일 조업정지를 했을 때 재가동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며 "최선의 방 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 다.

현대제철당진제철소 내소결공장의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SGTS(소 결로 배가스 처리장치)가 본완공돼 3기 SGTS가 모두 정상 가동되는 2021년에 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 기준 2만3292톤에서 절반 이하인 1만 톤 수 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소결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난 2017년 약 4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시작해 올해 5월 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규모 신규설비 완공, 5월 가동 대기오염 저감장치 SGTS 설치 촉매층 다단 구성으로 성능 향상

자체 환경상황관리 시스템 갖춰 2021년 오염물질 절반 감출 기대

새롭게 가동되고 있는 SGTS는 촉매를 활용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 중탄 산나트륨을 투입해 황산화물을 제거하 는설비로, 현대제철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촉매층을 다단으로 구 성해 설비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다.

공장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당진제철 소 안을 둘러봤다. 소결로 굴뚝 아래에 설치된 측정소에서는 오염물질 농도와 각종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자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철소 내 환경상황실로 전송되며 환경상황실에 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인 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었다.

환경상황실에 수집된 데이터는 한국 환경공단 중부권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 송되며, 이 자료는 환경부를 비롯해 충



당진제철소 소결 배가스 설비 전경.

남도, 당진시 등 행정기관에서도 실시 간 공유하게 된다.

현대제철은 기존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CSCR(탄소 선택적 촉매 환원장 치)의 성능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설비 진단을 받은 후 2017 년 개선투자를 결정하고 약 21개월간의 설치공사를 거쳐 신규설비를 완공했다.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부두를 지 나 철광석을 밀폐형으로 보관하고 있는 7개의 돔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야구장 크기 정도로 보이는 돔 안으로 들어가니 철광석이 흙과 섞여 가루형태로 보관돼 있었다. 일종의 저장공간이다. 이곳에 보관된 철광석들은 소결공장으로 옮겨지는데 가루형태의 철광석이 녹아 덩어리 처럼 뭉쳐져하나의 철강제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기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압 연 작업이 이뤄지는 열연공장이었다. 1200도의 열기로 인해 안으로 들어서자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이 9일 당진제철소에서 진행된 '소결 배가스 청정설비 개선현황 설명 회'에서 신규 가동 설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온몸이땀으로흠뻑젖고말았다. 이곳에서는 중간소재를 가열시켜 두께 1.2~25.4mm의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한편 현대제철은 7월 8일부터 2주 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관계자 등을 당진제철소로 초청해 신규 환경설비의 가동 상황을 보여주고 개선사항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진제철소는 밀폐평원료시설및자원순환형생산구 조를 구축해 출범부터 지역사회와 국민 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며 "그러 나 최근 각종 환경문제에 회사가 거론 되면서 지역주민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 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당진(충남)=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5년 만기 5억달러 규모

"에너지·환경 투자 강화"

완성차업계 임단협 '평행선' 현대차, 성과급 두고 기싸움

현대차 노조, 전면파업 카드 '만지작' 지엠, 교섭장 공방…두 달만에 상견례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을 둘러싸고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며 한국지엠 노사는 교섭장소를 놓고 두 달 가까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오랜기간 교섭 장소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임협 교섭에 돌입했다. 노사는 애초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가질 계획이 었지만 장소 문제로 이견을 보여 지금껏 교섭에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중앙노종위원회의 제 3의 장소에서 진행하라는 권고를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극한대립으로 치단던 갈등은 일단락됐다.

지부는다른완성차업체보다두달여 가까이 교섭이 지체된 만큼 속도감 있 는 교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 차이가 커서 타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측은 기본급 12만3526원 정액인 상과 지난해 기준 동종사 임금인상에 따른 격차해소로 1만6200원 정액인상 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팀장급 이상에 게 지급하던 성과급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투자와 생산물량 배정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손익분기점을 달성 하고 내년에는 흑자를 낸다는 계획을 달성해야 하지만 노사관계가 녹록지 않 아 미래가 불확실하다.

현대차노사는지난7일열린11차교 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히 려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차 노사는 임 금인상과 통상임금·성과급 등 금속노 조현대차지부의임금성요구안을중심 으로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는 현대차가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을 피하기위해지부 동의 없이 상여금 쪼 개기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 산되고 있다. 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전 면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차가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 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자 노조가 반대입장을 내놓은 것.

현대차 노조는 "노조 동의 없는 취업 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회사가 상여 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 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기본급의 6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짝수달마다지급해왔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 으로 늘어나면서 시급이 기준보다 낮아 지게 되자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 이를 만회하려는 것이다.

다만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이 불이익 변경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지급하는 상여금 총액은 바뀌지 않고 분할 지급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 전세계 최초 ESG채권 발행 성공

포스코가 전세계 철강회사 최초로 지속가능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8일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 으로 5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ESG(환 경·사회·지배구조)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은 환경친화, 사회책임,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포스코는 친환경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그린본드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소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소셜본드를 결합한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는 ES G채권발행을 통해 에너지, 환경 분야 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 었다"며 "새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전기 차 배터리 소재관련 신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산



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활동 등 그룹 신성장, 친환경 사업 등에 사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이번채권발행을위해지난 4월 국제자본시장협회의 그린본드 및 소셜본드 기준에 맞춰 'ESG채권발행 목적과 사용,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계 획'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금융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세계적 인증기관인 Sus tainalytics로부터 글로벌기준에 적합

함을 인증받았다.

글로벌투자자들은 최근 세계경제성 장 둔화에 대한 우려와 미-중 무역분 쟁, 미국채 금리의 변동성 고조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스 코의 우수한 영업실적, 우량한 신용도 (무디스 Baa1 안정적, S&P BBB+긍정 적) 및 국제적인 인지도를 신뢰하며 높 은 관심을 보였다.

HSBC, BAML, BNP Paribas, SC B가 주관사로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65%), 미국(28%), 유럽(7%) 등 전세계 투자자들이 참여해 포스코의 ESG채권 발행에 고른 관심을 보였다. 발행금리 는 5년 미국 국채금리에 105bps를 가산한 2.874%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동 채권은 싱가포르 거래소(SGX)에 상장될예정이다. /양성운기자

자동차기자단이 선정한 7월의 車는… BMW '뉴7시리즈'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가 뽑은 7월의 차에 BMW 뉴 7시리즈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의 차선정위원회 이승용 위원장은 "BMW 뉴 7시리즈는 6세대 부분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진화를 거듭해 풀 체인지에 가까운 변신에성공했다"며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답게 고급스런 내외부 디자인과 편의성, 강력한 퍼포먼스 등 종합 상품성측면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BMW 뉴 7시리즈가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뽑은 7월의 차에 선정됐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